



SUMMER 2019
VOL.194

홀트소식



여름 이야기

말리 홀트 이사장님은 아버지 해리 홀트와 어머니 바다 홀트의 유지를 받들어 버림 받고 상처 입은 수많은 전쟁 고아와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에 온 열성을 바쳤으며 암투병중에도 마지막 남은 일생을 '마음껏 사랑하는 일'에 쏟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p 계속)



Contents

- 04 꿈과 희망
I'm from Holt. 저는 홀트 출신입니다.
- 07 행복한 가족 만들기 1
입양가족 작품 공모전 '제13회 아름다운 행복'
- 10 행복한 가족 만들기 2
난 희망이 오빠가 좋아
- 13 행복한 가족 만들기 3
mom편한 플리마켓
- 17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1
책가방을 메고 싶은 아이, 스레이닛!
- 20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2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이렇게 달라져요!
- 22 나눔 기업 1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홀트가치학교
- 24 나눔 기업 2
10년간 휠체어농구대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다
- 26 나눔 이웃
이대호 선수와 함께 정기저금 캠페인 함께해요!
- 28 사랑을 행동으로
해피홀트데이, 홀트패밀리 백(Bag) 만들기!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홍현국 이사장(공인회계사) | 임부웅 이사(前 HICS 부회장) | 정용근 이사(前 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 백 이사 |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 박철웅 감사(삼덕회계법인 부대표)

아동/청소년복지
 본부 국내입양팀 T.02) 331-7000
 경기지부 T.031)217-5999
 광주지부 T.062)227-8877
 대구지부 T.053)756-0183
 부산지부 T.051)465-0224
 인천지부 T.032)424-0145
 충청지부 T.042)586-1983
 전주영아원 T.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홀트의원 T.02) 331-7060

미혼한부모가족복지
 미혼한부모지원센터 T.02) 331-7080

고운돌
아름뜰
아침뜰
광주클로버
대구클로버
대전클로버
마포클로버

장애인복지
 홀트복지타운 T.02) 914-6631
 홀트강동복지관 T.02)2251-6100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T.031)929-1500
 홀트보호작업장 T.031)914-6629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T.031)914-6635
 홀트학교 T.031)915-2912

지역사회복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
 분리복지관·늘봄심리상담센터 T.053)563-1007
 홀트수영복지관·가족상담센터 T.051)760-3600
 운봉복지관·아동발달지원센터 T.051)543-2431
 하남복지관·아동가족상담센터 T.031)790-29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복지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영유아복지
 마포어린이집 T.02) 334-4743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중동어린이집 T.02) 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본부 해외사업팀 T.02) 331-7085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194호·계간 발행일 | 2019년 6월 24일 발행인 | 홍현국 편집인 | 김호현
 발행처 |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1899-0923 후원ARS | 060-700-1006
 홈페이지 | www.holt.or.kr 디자인 | 알투디투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I'm from Holt. 저는 홀트 출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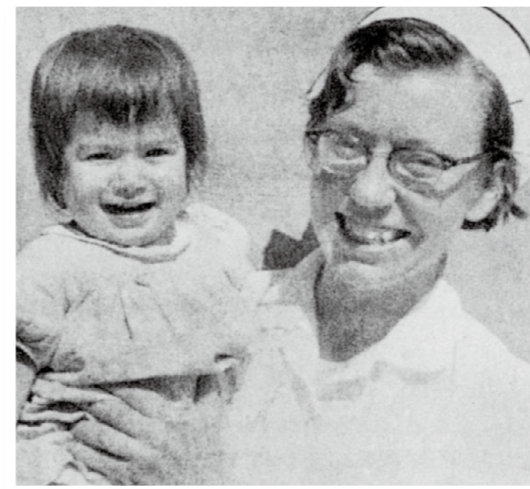
고아와 장애인의 어머니故말리 홀트 이사장님을 추모합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에 평생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 말리 홀트 이사장님이 소천 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말리 홀트 이사장님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25년보다 두 배가 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며, 홀트복지타운의 장애아동들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한국의 고아를 돌보는 일을 평생의 사명이라 여기며 봉사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간호사를 시작으로 6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한 홀트의 역사며 산증인이셨습니다. 말리 홀트 이사장님은 아버지 해리 홀트와 어머니 버다 홀트의 유지를 받들어, 버림 받고 상처 입은 수많은 전쟁고아와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에 온 일생을 바쳤으며 암투병중에도 마지막 남은 일생을 '마음껏 사랑하는 일'에 쏟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생전 작성하셨던 글 가운데 2014년도 이야기 일부를 옮겨 봅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I'm from Holt” (저는 홀트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지낸 시간이 25년, 그 두 배가 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으니 이전 한국인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인이 되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건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건 출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무 살, 간호학교를 막 마치고 대학공부를 하려고 할 즈음 한국에서 나를 부른 건 아버지였지만 그 뒤에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계셨음을 믿는다. 과연 그 분은 보잘 것 없고 연약한 내게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마음껏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셨던 것 같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랑이 있다. 가족의 끈끈한 사랑, 연인의 뜨거운 사랑, 친구간의 예쁜 사랑 등 많은 사랑이 존재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

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 땅에 버려지고 소외되었기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다. 하나님은 그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다. 또한 그 사랑을 알려줄 도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도구의 하나로 내가 사용되었음에 감사할 뿐이다.

‘많은 이들이 나를 향해 입양의 대모, 장애아들의 어머니, 때론 할머니, 여사님, 이사장님 등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한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나는 그저 말리 홀트, 때론 누군가의 어머니라 불러 지기도 했고 때론 누군가의 가족으로 누군가의 언니로 불러 질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떤 호칭이 되었건 나는 스무 살 때 내가 그랬듯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누구보다 사랑을 온몸으로 원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생활하는 말리의 집 거실엔 '백골난망' 이란 글귀가 걸려 있다. 이 글이 적힌 액자는 부산 소년의 집에서 성장한 고아가 30년 만에 나를 찾아와 건넨 선물이다.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뜻을 알고 마음이 아주 뿌듯했다. 백골난망, 죽어서 뼈만 남은 뒤에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큰 은혜나 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이란다. 그 버림받아 죽었을지도 모를 자신을 거둬 지금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다며 고마워했다. 액자를 받아들며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한참 말을 잊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입양아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입양아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의 입양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롬 8:14)



그렇기에 누구도 사람 앞에 자신할 수 없고 사랑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위대함과 겸손함을 지금의 홀트에서 배우도록 하셨다. 홀트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동산이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출신지를 물어온다면 당당히 대답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출신이며, 58년이란 시간을 한국의 아이들과 보내게 해 준 이곳 홀트아동복지회라고. 나는 그 뜻에 맞도록 순종하고 행할 뿐이다. 세상의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모토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와 입양을 시작한 아버지 해리 홀트의 현신,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며 사랑을 실천한 어머니 버다 홀트의 사랑, 이제 홀트가가 심은 작은 밀알 하나가 이 땅에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 것에 감사하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많은 이들의 숨은 공헌이 있었다.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은 우리에게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가르쳐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숨은 손길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들의 노력 없이는 오늘날 홀트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참 많이 변했고 발전했다. 60여 년 전 전쟁 통 같았던 기억들이 생생한데 지금의 한국은 도움 받던 나라에서 되레 도움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두운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이 있다. 입양만 해도 예전에 전쟁고아들로 인한 입양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사회 변화로 미혼모의 아기들 입양이 주를 이룬다. 장애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면 안 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지상 최대의 만남이 될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비록 가정을 이뤄주지 못하더라도 가정과 맞먹는 환경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랑받을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입양가족 작품 공모전 '제13회 아름다운 행복'

홍보팀 황지혜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을 확산하고 공개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13회 아름다운 행복'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회가 주최하고 롯데호텔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도 많은 입양가족들이 참여해주었는데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입양가족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만나보시죠.

사진 부문

박진숙 '우리는 하하 자매입니다'

하울, 하온 자매는 하하 자매입니다. 항상 "하하하"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아빠 엄마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온이는 아빠, 엄마, 언니 중에서 언니를 제일 좋아합니다. 퇴근하는 아빠도 좋아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언니를 보면 바로 하온이의 트레이드마크인 함박웃음을 보이며 환영 인사를 합니다. 언니가 이야기만 해도, 춤만 춰도 하온이는 깔깔거리며 언니에 대한 애정 표현을 듬뿍 합니다. 하울이는 동생이 생겨 질투를 할 상황인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온이를 많이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온이부터 챙겨서 속상하지 않아?" 하고 물으면 "하온이는 아직 아기니까 괜찮아요" 라고 의젓하게 말하는 멋진 언니랍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엄마보다도 하온이를 먼저 불러서 꼭 안아 주고, 하온이가 이유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는 친절한 언니입니다. 하하 자매가 이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빠, 엄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지켜줄 것입니다. 하하 자매야. 사랑해!



사진 부문



행복해서 웃고, 웃어서 행복하고
*강환미



교감*김선혜



사랑안에 하나된 오남매*이병렬



아빠의 시원한 사랑폭포*이보람



행복 바이러스*이혜영



나는...*장상준



손에 손잡고 앞으로 앞으로*최현규



휴일 날 달콤한 낮잠*전미현



마음이 간질간질*정은주

동영상 부문

곽예진 '어머나! 아름다운 구속이네'

어느 날 아빠를 따라가 보게 된 장윤정의 무대는 제 인생의 '첫 설렘'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큰 무대의 주인공이 될 테다' 이런 마음의 다짐으로 무대만을 꿈꾸던 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자연분만, 제왕절개와 함께 출산의 방법 중의 하나인 가슴 출산, 바로 입양으로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저는 열 살 차이가 나는 제 동생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꿈지락거리는 손과 발은 정말 신기했고, 웃는 모습은 사랑스러웠습니다.

은택이는 세 살이 넘어가던 때에 발달 장애의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은택이를 양육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 및 언어 치료로 바빴지만 은택이를 위해 은찬이를 입양했고 잘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특별성 척추증만증으로 중학교를 입학한지 두 달 만에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나에게 찾아 온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없이 원망스럽고 힘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며 앉아있는 동생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사같이 해맑고 순수한 내 동생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꼭 끌어안고 저는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내 동생으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봄 햇살 같은 따스한 사랑이 제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부모님이 막내 은준이를 입양하여 남동생이 세 명이 되었습니다. 한때 저를 힘들게 했고, 부모님의 시간을 쪼개 뒹구어 버린 동생들에게 지금도 우리 가족은 꼭 붙들려 있습니다. 매일 불러도 질리지 않는 노래의 제목인 '아름다운 구속'처럼 말입니다.



어머나! 아름다운 구속이네*곽예진



우리 집이 하늘나라*박정은



“난 희목이 오빠가 좋아!”

홀트복지타운 사회재활교사 박송은

BEAUTIFUL WEDDING



웃는 모습이 예쁜 김연옥 씨와(41 다운증후군, 지적장애1급), 아침이면 출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반겨주는 서희목 씨 (46 지적장애1급) 커플은 따뜻한 햇살에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3월 20일 결혼했습니다.



◀ 소중한 추억을 담은 다양한 사진들



희목 씨와 연옥 씨는 어렸을 적 홀트복지타운에 입소했습니다. 약 30년간 생활동에서 다른 이용인들과 함께 지내던 둘은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립에 관한 훈련을 통해 희목 씨는 2018년, 지역사회로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생활을 해온 둘은 약 40년 동안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룹홈 생활을 함께하고,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소리로' 단원으로 함께 노래하며,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홀트보호작업장에서 직장 동료로 서로 가까이 지내온 희목 씨와 연옥 씨는 조금씩 사랑을 싹틔우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웃이자 동료였던 희목 씨와 연옥 씨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년 전 쯤입니다. 다정한 희목 씨의 모습이 좋아 남몰래 희목 씨를 짝사랑하던 연옥 씨는 “나 희목이 오빠가 좋아”라며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던가요? 희목 씨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봄, 아름다운 꽃이 피는 어느 날 둘은 공식적인 연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역사회에 자립을 한 희목 씨는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45분가량 떨어진 연옥 씨의 그룹홈 숙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출근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퇴근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칩니다. 그렇게 매일 둘은 출퇴근을 함께합니다. 연옥 씨는 일을 할 때도, 나들이를 갈 때도 늘 희목 씨 생각뿐입니다. 예쁜 장소가 있으면 연옥 씨는 늘 “희목 오빠랑 사진 찍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둘은 결심합니다. '결혼'을 하기로요. 40살 평생 단 한 번도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이 없는 연옥 씨는 무려 12kg을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나 청소하는 법 등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목 씨는 든든한 가장이 되기 위해 성실히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는 등 둘은 차근차근 준비했고, 따뜻한 봄날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기초 생활수급권자'로 정부에서 받는 지원이 있지만 앞으로 먹고 살아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부부로 첫 발걸음을 시작한 두 사람이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부탁 드립니다.

mom편한 플리마켓

미혼한부모 자립지원 · 미혼한부모지원센터 원지현

벚꽃이 활짝 피던 지난 4월 13일 우리 회사는 롯데GRS, 롯데자산개발(주)와 함께 롯데몰 김포공항점 선릉광장에서 'mom편한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mom편한 플리마켓'은 작년 맘행복한 퀴즈마켓에 이어 2회째로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가진 미혼한부모가 직접 판매부스를 운영해 판로를 개척하고, 이와 더불어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을 통한 미혼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롯데GRS 사롯데 봉사단들이 미혼한부모 판매부스 운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사 롯데 봉사단들도 함께해 참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사진촬영과 인화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캠페인zone에서는 미혼한 부모가정에 대한 퀴즈캠페인을 진행하여 참여시민들이 미혼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엠주와 크리스피크림도넛에서도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기부하였습니다. 미혼한부모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김미경 강사의 특별 미니강연도 진행되었습니다. 'mom편한 플리마켓'은 준비한 분들과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미혼한부모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순희님은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일명 '소확행'을 얻는다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의미로, 일상에서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차차 큰 행복을 꿈꾸는 있는 김순희님은 "오늘 행사처럼 의미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과 또한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선정님은 자신의 딸과 딸의 많은 친구들을 위해 취미로 옷을 직접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플리마켓을 참여한 임선정님은 "직접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오늘과 같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니 일상에서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나진환님은 롯데GRS 사롯데 봉사단이며, 정기적으로 홀트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왔다고 합니다. 나진환님은 "봉사를 하면서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번 "플리마켓"과 같이 미혼한부모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취지의 행사가 자주 개최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LOTTE
GRS**



홀트아동복지회





위기 미혼한부모가정 긴급지원사업



맞춤형 프로젝트 '희망드림'

● 지원개요

- 신청 기간 : 2019년 3월 ~ 12월
- 신청 대상 : 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미혼한부모가정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 ①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 중인 미혼한부모(신청일 기준)
 - ②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미혼한부모
 - ③ 본인 또는 아동의 통장거래가 가능한 미혼한부모가정
- ※ 사회복지 유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미혼한부모 선정 시 우대
(기관추천서 제출 시, 기관신청으로 간주되며 기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비고
의료비(치료비)	아동 또는 부모의 수술비, 입원비, 치과치료비, 재활치료비 등	최대 4백만원	* 최대 2개 항목 중복신청 가능 (합계 최대 5백만원) * 지출증빙자료 제출 필수
교육, 자립훈련	수업료, 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등 * 기존 진행중인 교육·자립훈련이 경제적 사유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경우만 포함	최대 3백만원	
주거비	연체임대료, 일시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	최대 2백만원	
생계비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 식료품비, 교통비, 의복비 등		

● 사업일정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지원센터 전화 02-331-7081 / 이메일 : family@holt.or.kr

책가방을 메고 싶은 아이, 스레이닛

해외아동 교육지원 ·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동은





아침 7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가득한 시간, 스레이낫(Rady Srey Noch)은 일어나 친구들과과는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스레이낫은 3명의 어린 동생들에게 밥을 먹고 목욕을 시켜줍니다. 동생들을 돌보면서 편찮은 할아버지도 돌봐야 하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밀린 설거지와 빨래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책가방을 멘 친구들이 하하 호호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레이낫은 오늘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스레이낫이 평범한 아이의 삶을 잃어버린 나이 고작 10살, 소중한 분홍색 가방을 옷장 한 칸에 꼭꼭 숨겨둔 것처럼 스레이낫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을 꼭꼭 숨겨둬야만 합니다.



출석을 부족으로 유급을 하고, 그래서 학업에 지장이 생긴 스레이낫에게 홀트드림센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배움터이자, 아이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쉼터입니다. 스레이낫은 센터에 나와 부족한 국어(캄보디아어) 공부를 하고, 영어를 배웁니다. 이마저도 할머니가 집에 계셔서 동생들을 돌봐줄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공부가 어려운 스레이낫에게 이런 환경은 자꾸만 공부에서 멀어져, 꿈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이 가정에 전해졌고, 스레이낫은 꼭꼭 숨겨둔 분홍색 책가방을 드디어 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의 미래를 위해 할머니가 일 나가는 횡수를 줄이고 동생들을 돌봐주시기로 하셨기에, 스레이낫은 오전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가 끝난 후 센터에 나오는 횡수도 늘었습니다. 어딘지 어두워 보였던 스레이낫은 최근 장난도 잘 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캄보디아 트라피앙 안찬마을에는 여전히 스레이낫과 같이 동생들을 돌보느라, 집안일을 하느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많은 아동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는 아동이 아동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빈곤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빈곤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물 증축 등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아쉬운 상황입니다. 스레이낫처럼 평범한 삶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센터는 더 많은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고자 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이렇게 달라져요!

나눔결연팀 이현주 ·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김민아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는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운 날씨로 인해 건물도 빨리 노후되는데요. 특히 홀트드림센터의 건물은 지반이 낮아, 우기가 되면 1층이 물에 잠겨 아이들의 교재나 전기시설이 망가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또한 건물 노후로 인해 수도가, 화장실의 물이 나오지 않아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는 2개의 교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체능 수업의 경우 적당한 장소가 부족해 센터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을 빌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등록아동 인원이 늘어났고 2개의 교실로 모든 인원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수업을 위해 센터와 인근 건물로 번갈아 이동을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늘어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결석률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Q1.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가장 큰 변화는 센터 규모의 변화입니다. 기존에 있던 센터를 허물고 뒤쪽 공간과 앞쪽 공간을 합쳐 더 넓힐 계획입니다. 새로운 홀트드림센터는 3층으로 이루어지며 6개의 교실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인원의 아이들을 수용 할 수 있으며 수업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센터 확장을 위해 이사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 임시 교실로 짐을 모두 옮기는 이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모두 센터 직원들과 아이들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작 전부터 아이들은 서로 돕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사 기간에는 센터가 문을 닫는다는 공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사 첫날부터 선생님들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와 정리하기도 하고 수레를 끌기도 하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며 도와주었습니다. 힘들 텐데도 아이들은 서로 격려하고 웃으며 이사 내내 즐거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홀트드림센터, 릿티 소반다라(Rithy Sovandara)”



센터가 커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특히 캄보디아 전통춤과 태권도를 배우는 예체능 수업 때 모두가 참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친구들과 공부하고 다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완공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데요. 홀트드림센터는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홀트가치학교

나눔협력팀 명상우



지난 4월 9일 매향여자고등학교에서 홀트가치학교 나눔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매향여고는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홀트가치학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며 매향여고 학생들은 나눔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즐거운 [행복]이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눔은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을 수 있는 [거울]이다.”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향여고 김미경 부장교사(왼쪽)

Q1. 홀트가치학교 교육에 참여하시는 소감

요즘 학생들은 가족구성원이 적고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유대감 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혼자보다는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공동체를 통해 행복한 삶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되며 홀트가치학교 교육을 통해 가족에 대한 가치, 나눔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이라는 큰 가치를 학생들에게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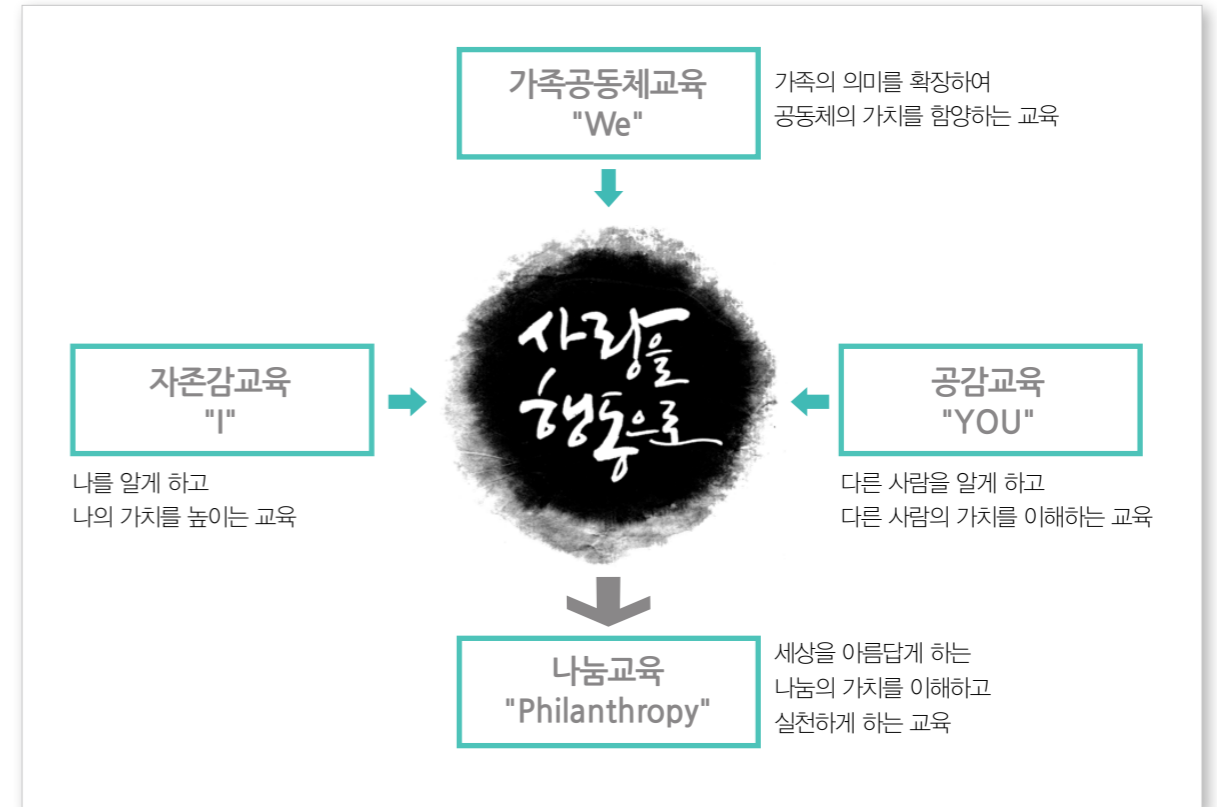
Q2.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눔'이란?

다양한 나눔의 실천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으며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홀트가치학교는 현대 사회에서 만연히 발생하고 있는 가족의 해체, 교우관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해결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눔 교육사 및 심리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 분들과 함께 지난 3년간 600회가 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홀트가치학교는 2015년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가족의 의미를 확장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함양하는 가족공동체교육, 나를 알게 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자존감교육, 다른 사람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이해하는 공감교육,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는 나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홀트가치학교 신청 방법

- 방법 ① 나눔협력팀 전화문의 02-331-7147
- 방법 ② valueschool.holt.or.kr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홀트가치학교는 IBK기업은행 과 함께 합니다.

10년간 휠체어농구대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다.

현대홈쇼핑 기업사회공헌 · 나눔협력팀 채성현



거친 바퀴소리, 철과 철이 부딪혀 나는 파열음, 고무공이 튕겨지며 들리는 드리블 소리, 그리고 함성소리. 이 모든 것이 장애인휠체어농구대회의 소리입니다. 어떤 스포츠보다도 박진감 넘치고 활기찬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홀트장애인휠체어 농구대회는 장애인들의 체력향상과 장애기능의 회복, 강인한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농구대회 중에 가장 역사가 깊은 대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 역사 속에는 휠체어농구대회를 끊임없이 지원한 많은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10년간 끊임없이 지원해온 '현대홈쇼핑'이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000만원의 기금을 휠체어농구대회를 위해 변함없이 꾸준히 쾌척하고 있는데, 양궁대회와 더불어 휠체어 농구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후원금은 대회를 위한 각종 운영비와 대회 시상금 및 선수 지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19일 이러한 현대홈쇼핑의 끊임없고 헌신적인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약속하며, 홀트아동복지회와의 다양한 사회공헌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대호 선수와 함께 정기저금 캠페인 함께해요!

나눔협력팀 홍은지



이대호 선수와 홀트아동복지회의 인연

지난 해 여름, 홀트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난 '수안' 이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수안이와 이대호 선수와의 깜짝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안이는 2008년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로 미국 시애틀에서 뛰는 이대호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본 후 이대호 선수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이런 수안이의 소식을 전해온 양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안이의 꿈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와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힘을 합쳐 깜짝 만남의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은 수안이에게 엄청난 선물이었을 뿐 아니라, 이대호 선수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안이처럼 좋은 가족을 만난 아이들도 있지만,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아직 많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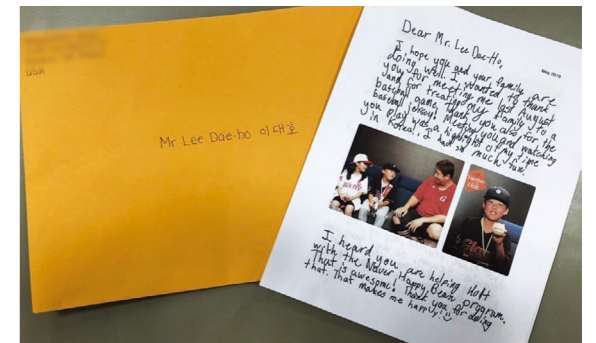
그래서 올해 5월, 다시 한 번 이대호 선수와 우리회가 힘을 합쳤습니다. 입양대기아동에 대해 알리고, 아이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되는 '정기저금 캠페인'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전하는 나눔 이야기를 확인하고, 홀트의 온라인 저금통에 함께 저금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대호 선수는 정기저금 캠페인을 함께 하며 '세상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미래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나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난 수안이도 입양대기아동들을 함께 응원합니다!

이대호 선수가 수안이와의 만남을 계기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저 멀리 미국까지 전해졌나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편지 한통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수안이가 직접 쓴 손 편지였습니다. 지난 여름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준 것과 홀트의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대호 선수와 함께 하는 '해피빈 정기저금 캠페인'은 프로야구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기저금 캠페인'의 다음 주자는 누가 될 것인지도 기대해주세요!



해피홀트데이, 홀트패밀리 백(Bag) 만들기

후원자 소모임 · 나눔지원팀 송하영



새싹이 움트고 꽃향기가 퍼지는 봄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었던 4월의 마지막 금요일, 2019년 첫 번째 후원자 소모임 ‘해피홀트데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모임은 다 쓰고 버려진 현수막을 활용하여 장바구니 또는 에코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홀트 가족으로서 직접 만든 가방에 사랑을 담아 한 해 동안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약 20여명의 후원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준비된 도시락을 먹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회의 역사와 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기계나 재봉틀이 아닌 손바느질로 가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후원자들이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가족단위 후원자들은 아이들이 바느질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가방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바느질을 끝내고, 테이블마다 주어진 다양한 재료들로 가방을 장식할 때는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아이들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끝나자 더 이상 쓸모가 없던 폐현수막은 정성과 개성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Interview 01



함께온 친구는 룸메이트로 친해진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의미있는 행사가 있어서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Interview 02



후원한지 2년 정도 되었고 후원자 소모임인 ‘해피홀트데이’에는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시험기간이라 바빴지만 꼭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옆에서 직원분들이 바로 도와주셔서 재밌고 손쉽게 가방 만들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봄날의 해피홀트데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초등학교부터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그리고 혼자 온 후원자들까지 모두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오롯이 바느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현수막 가방에 사랑을 담아 전하고자 하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봄날의 꽃보다 더 진한 향기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해피홀트데이는 2019년에도 분기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후원자분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시설퇴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2기 발대식

5월 9일, '파랑새, 꿈날' 2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후원으로 1기를 시작하여 2기 선발 및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멘토인 뮤지컬 배우 최정원씨가 선발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는 파랑새 2기 30명의 멘티와 23명의 멘토가 참석하여 각각 선발증서와 위촉증서를 받았습니다.



미혼한부모 주거비지원사업 '가가호호'

미혼한부모지원센터는 미혼한부모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사업 '가가호호'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가정 당 월 최대 15만원의 임대료를 10개월간 지원함으로써 자립 초기의 미혼한부모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자립 활동과 아동양육을 이어나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제14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입양주간 캠페인

5월 11일, 입양의 날 기념행사가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입양가족들이 참여하여 시상식, 체험부스, 가족운동회로 모두 한 가족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입양의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신촌 스타 광장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지부 비에이치아이인터내셔널, 후원물품 전달

5월 27일, 부산지부에서는 (주)비에이치아이인터내셔널의 후원물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후원물품은 2,000만원 상당의 유아 및 아동 마스크와 스템프로 미혼한부모가정 지원 및 미혼한부모가정 지원 기금 마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천지부 국내입양 인식개선 거리캠페인

입양주간을 맞아 5월 15일 국내입양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인천대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성인까지 즐겁게 입양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학생 및 시민 약 150여 명의 분들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구지부 사랑 나눔 바자회 실시

5월 18일, 대구 여성아이병원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종일 비가 내렸지만 행복한 손길로 바자회 물건을 구매해주시는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바자회는 즐겁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항상 바자회를 위해 도움주시는 여성아이병원 임직원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는 지역주민분들,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경기지부 입양주간 기념행사

5월 14일, 16일에 제14회 입양주간을 맞이하여 입양의 날 기념식과 입양부모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40명의 입양가족이 참여해주셨고, 입양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식과 에버랜드 문화체험,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충청지부 아름다운 자원봉사의 손길 아름다운 자원봉사의 손길

자원봉사 단체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동들을 위해 도서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입양가족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11일, '오늘의 지식 나눔이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포토존 운영, 도서와 다양한 기념품을 직접 배부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광주지부 입양의 날 기념식

5월 11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입양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념식에는 입양가족, 입양기관 관계자, 후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입양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광주시장 표창장을 시상했습니다. 이어진 마술쇼, 샌드 아트 공연, 워터락에서의 물놀이로 입양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홀트복지타운 제25회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고양시장컵 제 25회 홀트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5회를 맞이하는 홀트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 휠체어 농구대회입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홀트학교 ColorFull Holt 미술축제

홀트학교에서는 5월 24일 Color Full Holt 미술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천연 염색'을 포함한 14가지의 다양한 미술 체험활동으로 전교생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학교 미술축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학생 정서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가정의 달 기념 어울림 한마당

5월 11일, 분리어린이공원에서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한 '2019 우리들은 자란 데이(DAY)!'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쾌청한 봄 날씨와 다양한 체험거리 및 놀거리·먹거리로 가득했던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의 많은 주민들이 서로 웃고 소통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다함께봄나들이**

홀트강동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이용자, 이용자 부모님들과 함께 용인 한국 민속촌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봄나들이를 통해 공연을 관람하고 놀이기구를 이용하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하남주민 하나로 '하하축제'**

5월 18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만들어가는 '하하축제'를 복지관 건물 및 야외마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하남시슬로건을 반영한 '빛나는 하남을 지켜라! 홀트맨'이라는 주제로 나눔, 안전, 환경, 가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 미션과 체험활동을 제공하였고, 약 9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제2회 주민축제 '홀트야 놀자'**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와 함께 복지관 전체 층을 개방하여 지역주민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먹거리 장터, 새로 개최된 아동·청소년 댄스대회, 체험 프로그램 및 특강, 바자회까지 없는 게 없는 날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알고 편히 쉬어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길 바랍니다.



**아침들
'하트Nx원더맘' 플리마켓**

KTCS 내 소통카페에서 두리모 자립지원을 위한 플리마켓과 일일차집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 맞는 행사로 150여명의 KTCS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침들 엄마들이 직접 만든 음료와 빵, 쿠키, 캔디 소품과 더불어 임직원의 기부물품을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아침들에 전달했습니다.



**대전클로버
아기와 엄마의 성장 축하 프로그램**

대전클로버에서는 지난 4월 5일, 5월 3일, 5월 20일에 아기와 엄마의 성장을 축하하는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롯데 GRS의 후원으로 엄마와 아이들에게 특별한 돌잔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기에겐 오늘처럼 좋은 일,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중동어린이집
부모참여수업**

만 4세반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가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6월 1일 발표회 및 부모참여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동요 선물에 감동했는데요. 또한 인절미 만들기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님과 행복하고 고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5월 8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축하하기 위해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들과 참석하신 내빈들 모두 직접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기념공연과 무료 중식, 직접 만든 천연비누를 포함한 정성이 담긴 선물도 증정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어르신들이 만족한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5월 9일, 지역 내 독거 어르신 230여분을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감사해孝, 사랑해孝, 존경해孝)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가수의 축하공연과 함께 복지관 교육문화강좌 수강생들의 공연, 대구아리술유치원 원생들의 울동까지! 대구복지관을 찾아와주신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운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후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서 고운들 엄마와 아기들을 위하여 올 한해 넉넉하게 먹기에 충분한 쌀과 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셨습니다. 스포츠센터에는 헬스, 스피닝, 필라테스, 요가, 수영 등 많은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엄마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구클로버
지정기탁사업 실시**

2월부터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 사업으로 개별문화프로그램 '뽀(FUN)뽀(FUN)하게 물들다'를 실시했습니다. 개인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 욕구를 단체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욕구에 맞는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단체 활동이 아니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녀의 월령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하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포패밀리웰컴데이**

5월 25일,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회통합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250여명이 '가족행복' 특강과 요리 및 생화토피어리 만들기, 우드 아트, 매직 풍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어린이집
세시풍속 '단오' 씨름놀이**

6월 7일, 단오를 맞아 세시풍속인 단오의 유래도 알아보고 썩떡 만들기, 단오부채 만들기, 씨름놀이 등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놀이 등을 체험해보며 우리 조상들의 생활 풍습과 지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카카오 검색창 아이콘을 클릭

검색창에서 플러스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검색한 후
친구추가를 눌러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사업 소개

입양대기아동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입양대기아동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미혼한부모가정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413일, 아이들의 빈 시간

입양대기아동 지원 캠페인

친부모와 헤어져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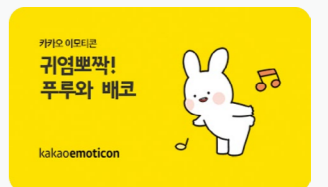
“평균 413일”

누군가는 꼭 기억해줘야 할 입양대기아동의 빈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빈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QR코드 스캔하고

입양대기아동들을 위한 응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귀염뽀짝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이모티콘 소진시까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후원문의 | 02-331-7073~6 ARS 후원 | 060-700-1006



6자리 비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모바일뱅크 i-ONE Bank

계좌이체에서 자산관리까지 모바일 풀 뱅킹 | 모든 이체의 간편송금(1회 1천만 원, 1일 최대 5천만 원) | 1인 1기기 1인증서 사용

i-ONE Bank 앱 다운 받고! 꿀 선물 받고!

하나 꿀같은 특판예금!	둘 상품 가입하고, 꿀 행운까지!
<p>상품명 1417조통장(중금채) 1년제</p> <p>예금금리 최고 2.19 % (2019.5.30 기준)</p> <p>가입금액 1백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p> <p>가입조건 아이원뱅크 앱을 통해 1인 1계좌 가능</p> <p>가입기간 2019.5.21 ~ 한도(5,000원 한) 소진 시까지</p>	<p>행사기간 2019.5.21 ~ 2019.6.21</p> <p>행사내용 아이원뱅크 앱을 통해 예금, 적금, 펀드 중 1개 이상 가입한 고객 대상 경품 추첨</p> <p> 1등(1명) 삼성 스탠드 에어컨 2등(2명) 여행상품권 50만원 3등(5명) 다이스 헤어드라이머 4등(1,000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p>



준법감시인 심의결 제2019-2452호(2019.05.17) 게시기간: 2019.05.20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BR&고객센터(☎1566-2566)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BK기업은행 분쟁처리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통용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1332, BK기업은행: ☎080-800-0119) BK기업은행은 금융·영업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경영 휴업 사실이나 개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1bkethics@ibk.co.kr)